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제8회 사진 비엔날레에 요구하는 것

심상용 (2021년 제8회 대구사진비엔날레 예술감독/미술학 박사)

1. 코로나 19 바이러스, 락 다운(Lock Down)

코로나로 인한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던 2020년 4월 암스테르담의 한 슈퍼마켓에서 어윈 올라프¹⁾는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다. "사재기로 비워진 슈퍼마켓의 진열대는 모든 것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며 화산의 가장자리에서 추는 우리의 춤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수십 년 동안 내가 가정했던 것의 진실에 대해 깨닫게 해주었다. 진실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올라프와 그의 카메라가 마주했던 진실, '삶은 화산의 가장자리에서 추는 춤'이며, 그것을 '누락된 진실'로 만드는 집착이 지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그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코로나 19 바이러스라는 것, 역사의 많은 순간들처럼, 이번에도 진실은 비참성의 뒤를 밟으면서 왔다. 이 질서를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인간적 자질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2021년 제8회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주제전을 <누락된 의제-37.5 아래->(Missing Agenda-Even Below 37.5-)'로 이끌었다.

37.5의 의미는 무엇인가? 현재의 코로나 팬데믹 사태의 맥락에서 그것은 의학적 '정상'이나 '안전'의 신체적 기준인 37.5°C를 의미한다. 하지만, 위기는 암스테르담의 슈퍼마켓 가판대가 물건들로 가득했을 때, 그러니까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이 속악한 문명을 잠정 중단시키기로 마음먹기 전부터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되어 있었다. 삶과 삶을 둘러싼 조건들이 정상이거나 안전으로 정의되던 때, 위기는 턱밑까지 다가와 숨통을 죄고 있었던 것이다. 그 기간은 우리가 붙잡아야 했던 기회들이 점차 소멸되는 기간이었다.

2021년, 이 문명이 지속적으로 누락해온 의제들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 바이러스다. 이 바이러스에게 우리의 미학적 경험의 일부를 위탁하는 것의 정당성의 기반이 이렇게 해서 마련된다. 이런 맥락에서라면, 인간과 바이러스의 '적대적 공생관계 (antagonistic cooperation)'를 논하는 것도 터무니없는 일만은 아닐 듯하다.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자.

2. 환경. 자본. 차별

주제전 <누락된 의제-37.5 아래->를 지지하는 두 개의 원칙이자 전제가 있다. 하나는 이미 3백만 명 이상이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는 어떤 의미에건 이 시대 문명의 야만성의 재현일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엔날레의 일차적인 사명이 시대를 올바르게 조명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세계를 이해하는 대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길을 제시하는

1) 지난해(2020)네덜란드 정부로부터 네덜란드 사자 훈장 기사장을 받았다.

것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후쿠시마 원자력 오염수를 태평양에 버리기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에 이 전시가 주목하는 근거가 된다. 이 결정에 대한 세계 원자력 기구(IAEA)의 묵인과 동조로 볼 때, 그리고 이 일이 이 행성의 미래를 재앙에 몰모로 내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을 일에 대한 G7 국가들의 일관된 침묵으로 볼 때, 이는 환경의 문제이기 이전에 진실의 문제다. 거의 모든 책임있는 국제사회 구성원들의 묵시적 동조 안에서 진실 자체가 '누락된 의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2011년 3월 11일, 전례가 없던 원자력 발전소 폭발이 후쿠시마에서 일어날 때까지 이 문제를 다루는 유일한 방법은 망각, 무시, 은폐 및 공식적인 오차에 의한 누락이었다.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을 때, 조금만 진실을 대하는 태도를 달리 했더라면, 2011년의 재앙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었지 않았을까. 2000년 제7대 유엔 사무총장(1997년 ~ 2006년)을 지냈던 코피 아난(Kofi Annan)의 지적이 컸전을 맴돈다. "체르노빌을 잊으면 기술과 환경 재해의 위험이 미래를 집어삼킬 것이기에, 더는 망각이라는 사치를 누릴 겨를이 없다." 하지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11년 후에 일이 터지고 말았다.

진실로 진실의 은폐와 누락이 문제다! 그것이야말로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세계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마침내 실패에 이르고 마는 이유"다. 우리는 이 시대를 작동시키는 메커니즘, 우리의 금융시스템과 소비중심주의가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럼에도 여전히 계속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

2007년 독일의 하일리겐담 해변에서 G8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이 실패한 문명이 작동하는 방식이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무엇보다 시급했던 어젠다는 아프리카의 식량부족과 기아 문제였다. 하지만 정상회담에서 정작 중요하게 취급된 두 의제는 '민간투자 보장'과 '특허권의 광범위한 보장'으로, 두 개 모두 세계 총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500대 다국적 기업의 이익의 보장이나 확장과 관련된 것이었다. 아프리카의 기아문제는? 의제로 상정조차되지 못했다. 어린이 열 명 가운데 한 명이 매 5초마다 기아로 목숨을 잃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무산되는 순간이었다. 이런 일이 G8 회담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2020년 5월, 미네애플리스(Minneapolis) 경찰관의 손에 의해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차별이 다시 고개를 쳐들고 지구촌의 화두로 되돌아왔다. 전 세계에서 'Black Lives Matter' 시위가 이어졌다. 그 이후로 변화에 대한 약속들이 이어졌지만, 변화는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 국적, 인종, 종교, 성(性), 피부색..., 인간의 거의 모든 요인이 차별의 근거가 된다. 차별은 집단화됨으로써 폭력을 정당화하는 요인으로 거듭난다. 초기에는 자본주의가 그것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믿어졌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강화한다는 사실이 확인해졌다. 차별을 정당화하는 문화가 넘실대는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그 시효를 다 한 남루한 휴머니즘에 가까스로 운신을 의탁하는 중이다. 이것이 우리가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조셉 로드리게즈(Joseph Rodriguez)의 'LAPD 1994 시리즈'를 긴급하게 호출해야 했던 이유였다.

우리는 다시 계급사회로, 계층에 따라 야만적으로 분열된 사회로 후퇴를 거듭하는 중이다. 오늘날 문명의 건설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이간과 분열, 그리고 인간들 상호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부수는 햄머질에 의존하고 있다. 여전히 차별 금지를 요청하는 소리가 멀리서 나약하게 들려온다. 하지만 대체 남아있는 그 무엇에 근거해 그것을 요청할 수 있겠는가.

3. 진실과 은폐, 그리고 비엔날레의 의미 되새기기

그렇다면, 이 전시의 미학적 노선은 무엇인가? 폭로인가? 아니면 고백인가? 아마도 양자 사이의 어디쯤에 위치되리라. 양자 모두일 것이지만, 비판이 이 전시의 궁극의 비전은 아니다. 성찰이 부재하는 비판은 또 다른 증오와 폭력의 인큐베이터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비판 없는 성찰은 애당초 믿을만한 것이 되지 못 한다. 이런 맥락에서 <누락된 의제 -37.5 아래> 전이 시종 스스로에게 신중하게 던져야 했던 질문은 ‘사진이 그렇게 하는데 있어 얼마나 정교한 도구인가?’였다. 누락된 의제들을 다시 우리의 사유와 인식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것들의 요청이 우리 마음의 한 가운데 다시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일렁이는 자본과 욕망과 폭력의 파도 위에서 무기력하게 요동치는 의식을 다잡아 세우기로서의 사진! 이는 전시의 세부적인 구성과 참여작가 선정에 있어 유의미한 기준이기도 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예컨대 스위스의 사진작가 얀 밉가드(Yann Mingard)에 주목해야만 했다. 그에 의하면, 이 시대는 진실이 아니라 진실을 감추는데 점점 더 많은 돈을 쓰는 시대로 기록될 것이다. 밉가드는 2009년에서 2013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유기 및 디지털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유럽 전역의 21개 예약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것들의 위치, 내부의 실험실, 연구 중인 유기체(생물체), 실험 기자제와 물품과 재료, 샘플과 데이터가 보관된 컨테이너를 촬영했다. 그것들에는 세계에서 모여든, 비밀 보장을 위해 은밀하게 숨겨야 할 술한 것들을 위한 중립적인(?) 은행이다. 물론 비밀보장은 엄청난 비용을 요구한다. 그렇기에 이러한 예약소들을 찾는 사람들은 모두 부자거나 권력자다. 새삼 놀랄 것도 없지만, 부자일수록 더 많은 은폐할 것들을 가지고 있다.

4. ‘기꺼이 사진을 부정하기’로서의 사유(?)

인도의 작가 날리니 말라니(Nalini Malani)는 날리니 애니메이션 작업을 자신의 노트에 고통으로 썼던 어휘들을 공공의 영역으로 들여놓는 행위의 일환으로 설명한다. 그에게 이러한 형식적 여행은 ‘유화가 아닌 것은 모두 일탈’로 배웠던 전통적인 사유와 인식을 박차고 떠나야 했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말라니는 1929년 36세 되던 해에 작업일지에 ‘회화를 죽이고 싶다’고 적어놓았던 미로(Miró)를 읽으면서 용기를 얻었다. 미로의 그러한 생각은 오늘날 ‘안티-페인팅’으로 통칭되는 드넓은 경작지로 회화를 인도했던 그것과 일치하는 생각이었다. 사진도 그러한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다. 자신의 한계를 성찰하는 과정에, 가능성의 영역이 확장된다. 세계를 향해 스스로를 열도록 촉구하는 한계의 성찰에서 철학적 공명이 발생하고, 미학적 경작이 풍요로워진다. 기꺼이 사진의 부정을 감수하기까지 이르는 사유를 통해, 사진은 인간을 향한 열린 관문으로서의 사진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5. 예술, 생명

바이러스로 도시들이 폐쇄되고, 사재기로 슈퍼마켓의 가판대가 텅텅 비고, 원전 오염수가 대양을 오염시킬 것이 예상되는 데도 IAEA는 그것을 정당화하고, 진실이 끝도 없이 은폐되는

중에도 생명의 역사는 지속된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상처는 회복되고 다시 행복을 추구한다. 메간 엘만스(Meagan Elemans)는 '산후 표준화(Postpartum Normalized)'라는 사진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임신과 출산의 경험, 모성의 초상을 그린다. 그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동반하는 경험이었지만, "그동안의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엘만스는 그것을 단지 여성들이 '반복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여성의 모성(母性)으로의 아름다운 진화로 정의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이 사진 시리즈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영감을 주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누락된 의제-37.5 아래>전은 엘만스가 아름다운 항해로 묘사한 것, 씨앗으로부터 작은 인간을 키워내는 일의 바로 옆에 볼프강 틸만스의 장엄한 하늘과 바다의 풍경을 배치하는 것을 하나의 시각적 종지법으로 이 여정에 봉헌하는 것을 생각하다. 이는 포스트 휴먼을 노랫말처럼 입에 달고 사는 어떤 이들에게는 탐탁치 않은 고전극의 일부로 보일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기원이라는 거울 없이 스스로를 탐색하고 발견하는 일은 한계가 명백한 계획으로, 돌이키기 어려운 오류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뿌리를 잊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아무 것도 없다! 이는 비엔날레를 최근의 진실에 민감해야 한다는 알리바이 뒤에 숨은 어린아이로 만들지 않기, 단지 칭얼대고 보채는 철부지와 같은 것으로 만들지 않기의 일환이기도 하다.